

만민이 우러러 따르는 불세출의 위인,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김정은각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전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의 반영이다.》

김정일각하와 선군장정의 길에 함께 계시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인민군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셨다.

그이의 령도가 있어 나라의 자주권은 확고히 담보되고 조선은 불패의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천출명장으로서의 천품과 자질, 품모를 최상의 경지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은각하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소식에 접한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가 격정에 넘쳐 터친 심장의 토로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 강인담대한 의지와 배짱으로 위대한 김정일,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시며 세계평화와 정의를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열렬히 칭송하고 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는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 승리만을 떨치고계신다.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탁월한 령도자를 모실 때 두려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김정은동지이시야말로 뛰어난 정치실력과 고매한 덕망을 지닌 위인중의 위인이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대표단 단장 겐나지 콜리코브는 령장으로서의 뛰어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시고 정치와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하신 김정은동지와 같은신분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그이는 만민이 우러러 따르는 불세출의 위인,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다. 그이의 존함만 들어도 미제와 세계반동들은 공포에 떨고있다고 말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은 이렇게 피력하였다.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조선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김정은각하는 천하제일명장

이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무비의 담력과 드센 배짱으로 쳐갈기시며 조선인민을 승리로 이끌고계신다.

또 한분의 선군령장을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할자이 세상에 없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어 선군조선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찌 우말라또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는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을 지니신분이다.

그이께서는 정력적이며 천재적인 령도로 나라의 군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에서 비약적인 전변을 안아오고계신다.

인류는 무비의 담력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위락위락하시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끝없는 존경의 마음을 안고 그이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시며 시대와 인류앞에 거대한 업적을 이룩해가시는 김정은동지는 진정한 애국자,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이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본사기자

백두산천출위인들께

베루에서 상장들을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베루 깔라오일보사에서 상장들을 드리였다.

백두산천출위인들께 드리는 상장들을 전달하는 행사가 11일에 진행되였다.

깔라오일보사 사장 겸 책임주필은 조선인민의 전승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상장들을 드리기로 하였다 하였습니다.

조선은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 참신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은 방문화어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나라,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누구나 국가와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

속에 근심걱정을 모르며 사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보았다.

이처럼 강대한 나라를 일떠세우고 빛내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상장들을 수여해드리는데는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으로 된다.

백두산천출위인들께 드리는 상장들을 사장 겸 책임주필이 베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상장들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셨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 그리고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시어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상장을 수여해드릴것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글이 씌여졌다.

본사기자

조선인민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빛나는 승리

나이지리아인사 담화 발표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 성공과 관련하여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위원장인 다미안 오그본나 나이지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인 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세기를 이어온 미

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하고 야만적인 전대미문의 온갖 도발과 겁쟁이는 시련속에서 추호도 흔들림없이 선군의 기치높이 전진하여 온 조선인민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빛나는 승리라고 하면서 이번 특대사변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을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조선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선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무분별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는 한 핵역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한 조선의 당과 정부의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제15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개막

제15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가 과학기술전당에서 개막되었다.

전람회장에는 당의 과학기술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 발명가들이 개발한 1500여건의 우수한 발명 및 새 기술성과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를 비롯한 각도(직할시)단위로 출품된 전시품들은 원료, 자재, 설비들의 국산화실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제안들 등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성과자료들이 있다.

전람회기간 과학기술발표회, 지적제품류통사업 등이 있게 된다.

개막식이 18일에 있었다.

개막사를 리충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서 과학기술강국을 선차적으로 점령하여 할 중요한 목표로 규정하시고 그 총적목표와 과업,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 기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많은 발명, 새 기술들이 창조되어 첨단설비를 비롯한 기술수단들이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체로 생산보장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전람회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새 기술창조사업을 활성화하고 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첨단기술성과들과 새 기술혁신인들이 생산과 건설에서 은을 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동족대결의 전철을 밟으려는가

17일 남조선의 외교부장관과 통일부 차관 등 고위당국자들이 서울에서 유엔 《북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북인권》 상황은 신(정부)로서도 큰 우려사항이라느니, 《국제사회의와 협력》이니 뭐니 하면서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걸고들었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당이 임기전기간 그 무슨 《북인권》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면서 남조선내부는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

대들에서까지 반공화국 《인권》대결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왔던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인권문제로 세계적인 개교망신만 당하는 저들의 주제별보고관을 만나 《북인권》 상황은 신(정부)로서도 큰 우려사항이라느니, 《국제사회의와 협력》이니 뭐니 하면서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걸고들었다.

그러나도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 고 떠드는 현 남조선당국이 임기시작부터 잊지도 않는 《북인권》을 걸고 드는것은 이전 《정권》의

동족대결바통을 이어받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사실 인권문제가 북이 아니라 남에 있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오늘도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초보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속에 보내고있다.

남조선사회는 사회적약자들의 인간적권리와 존엄이 무참히 유린되는 생지옥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유엔 《북인권》 특별보고관앞에서 《북인권》에 대해 횡설수설

한것이야말로 거덜이 난 《북인권문제》를 《국제화》하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해보려는 비렬한 추태이다.

《북인권》소동은 본질에 있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이며 그 결과는 북남관계파국과 전쟁위험의 증대밖에 없다.

현 남조선당국은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리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과 같은 불행한 신세에 처하지 않으려거든 범죄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량심수석방을 남조선당국에 요구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8일 량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량심수석방을 석방하지 않으려는 남조선당국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량심수석방이 없는 인권회복도 없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량심수석방은 리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남조선의 인권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량심수석방을 포기하는것은 인권을 포기하겠다는것이며 량심수석방을 반대하는것은 정의를 바로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단체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량심수석방이 있는 감옥문을 국민들의 손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정의와 최강의 힘으로 반제반미대결전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완전대성공을 선언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7월 27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이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낸 제2의 해방의 날이며 미국을 력사상 처음으로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한 공지높은 승리의 명절이다.

인류력사에는 위대한 주석님처럼 한 세대에 횡포한 제국주의 두 강적을 쳐물리친 신 희세의 령장,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령도자는 일찌기 없었다.

조선전쟁은 창건된지 2년 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과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과의 대결이었다.

당시 미국은 수적, 기술적 우세를 떠벌이면서 조선전선에 현대적기술장비로 무장한 자기 나라 육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의 추종국가군대들과 남조선군 및 일본군주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무려 200만여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였으며 수많은 군사비와 군수물자를 탕진하였다. 또한 《하기공세》, 《주기공세》, 《김화공세》, 《교살작전》, 《초토화작전》, 《신공세》 등 세계전쟁사상에서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군사작전과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지어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세균폭탄들을 무차별적으로 공화국의 령토에 퍼붓고

국가방위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국방과학부문에서 항일의 연결폭탄정신과 군사력혁명정신으로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셨다.

오늘 핵억제력을 증추로 하는 공화국의 막강한 군력에는 자위의 병기창강화를 위하여 군자땅에 새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로고와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다.

언제인가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평남도 성천군의 한 고개마루에서 차를 세우시고 감회에 젖으시어 산야를 둘러보시었다. 그러시고는 동행한 일군에게 여기가 백원고개라고, 나는 이 고개를 언제나 무심히 넘을 수 없다고 나직이 뇌이시었다.

그날 백원고개에서 주석님께서 바라보신 곳은 조국해방전쟁시기 나라의 병기창이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다

핵무기들까지 끌어들이며 마구 사용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영웅적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전쟁사상 가장 비참한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공화국이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국을 타승하고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할수 있는 결정적요인은 백전백승의 강령의 령장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인민군대가 침략세력의 불의의 공격을 저지시키고 반공격으로 넘어가 3일만에 서울상공에 공화국기를 휘날리고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고있는 대전해방작전의 승리를 가져올수 있는것도, 미국의 《하기 및 주기공세》를 여지없이 짓부시고 1211고지와 월미도, 주문진해상전투를 비롯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수많은 전투승리들을 련이어 창조할수 있는것도 위대한 주석님의 비범한 군사적지략과 탁월한 령군술이 있었기때문이다.

전쟁 3년간의 매일, 매 시각은 이러한 승리의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진 나날이었다. 하기에 《전쟁과 미국》

자리잡고있는 군자땅이었다. 바로 그곳에 주석님의 선견지명의 결단과 조치에 의하여 전시에 창설된 지하병기공장이 있었다. 미국을 괴수로 한 제국주의침략무력을 타승한 전승의 축포성취에는 군자리의 거세찬 기계동음이 있었다.

지금도 그날의 지하병기공장

에는 총신과 포신을 깎은 선반들과 탄창을 찍어낸 프레스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미군이 눈이 달린 포탄을 날린다고 아우성친 82mm박격포를 비롯한 곡사포, 기관단총 그리고 탄알, 수류탄 등을 대량 생산한 군자리의 지하병기공장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떠받들었다.

알려진것처럼 미국이 조선전쟁을 계획하면서 1차적인 공

이라는 미국도서의 갈피에도 《력사적으로 고찰해볼 때 미국은 명성높은 장군들을 한 두명 과견하여 전쟁의 승리를 획득하는데 습관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전쟁은 미국의 장군들을 매장시키는 무덤이었다. ... 상대한 적의 북조선군총수 김일성장군이 30대의 젊은 장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수치스러운 대아메리카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라고 씌여져있다.

조선에서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른 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은 조미사이의 총포성없는 대결의 60여년이었다.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아온 그 치렬한 대결전에서도 승자는 언제나 조선이었고 쓰디쓴 패배를 당하기만 한것이 미국이었다. 이것은 두 나라사이의 법칙적인 전통으로 되었다. 아메리카제국의 《힘》을 과시하며 행성의 절대군주처럼 행세하였어도 조선과 맞서면 서리맛은 호박일신세가 되고 한없이 작아지기만 한것이 미국이었다.

거만한 미국에게 련속 강타를 안기시며 위대한 주석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신분 중략격목표로 정한것은 병기공장이었다. 그러나 전쟁초기부터 수많은 비행기를 투입하여 폭격에 광분하였지만 그들은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대한 주석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 과단성있는 조치에 의하여 미국의 기도가 완전히 파탄되었던것이다.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요구하는 전선상황과 병기생산과 보장을 과단성있게는 미국의 기도를 통찰하신 주석님께서 전시의 어렵고 긴장한 조건에서도 평양의 평천리병기공장을 비밀리에 성천군 군자리의 지하갱으로 신속히 이설하도록 하시었다. 하여 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의 군수공장들을 제거하여 전쟁형세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역전시켜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던

이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십성상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푸에블로》호사건과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격과분쇄하시시고 판문점과 초도, 오성산과 1211고지, 351고지 등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종횡무진하시며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공화국은 미국의 함복문서들을 받아내고 조미대결전에서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련전련승의 력사와 전통을 길이 빛내이며 최후승리의 7.27을 안아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철석의 신념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서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

로 피해를 돌려 전시무기생산을 보장한 군자리정신은 싸워도 우리의 무기로 싸우고 승리하여도 우리의 무기로 승리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주석님의 자위의 신념이 낳은 열렬한 조국수호정신, 불굴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이였다.

격려하시었다. 위대한 주석님의 믿음과 기대에 고무된 생산자들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으며 불꽃튀는 생산전투를 벌리었다. 밀려드는 잠을 이겨내기 위하여 눈에 나무췌창이를 뺄쳐놓고 기계를 돌리었다. 식사시간도 아까워 한쪽호주머니에는 통강냉이알, 다른 호주머니에는 소금을 넣고 씹으며 포신을 깎고 수류탄을 조립하시었다. 가렬철결한 전쟁시기 맨손으

운 전통이며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은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에는 미국이 력사의 법칙적인 전통을 망각하고 감히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또다시 감행한다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단호히 징벌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최근 세계를 진감시킨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은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단력, 탁월한 령도로 미국의 광란적인 핵위협소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나라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최상의 수준으로 다져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5천년민족사의 특대사변이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완전성공으로 세계를 두고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총결산하기 위한 강위력한 전략무기체계가 마련되고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크게 향상되었다.

지금 미국은 그 무슨 《최대의 압박》을 운운하며 조선

군자리는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만 무기를 만드는것이 아니다,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나라의 국방력을 힘차게 건설해나가야 한다. 이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자기의 무기를 억세게 버려나갈것이다라고 하신 주석님의 강인한 의지에 받들려 나라의 첫 공장대학이 태어나고 자주국방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인재들이 자라난 교장이기도 하다.

반도주변에 핵전략장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공화국을 위협공갈하고있지만 핵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팔라 군사적으로 통략하는 미국의 허장성세가 공화국에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오늘 공화국은 보병총을 가지고 원자탄을 가진 미국을 타승했던 60여년전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게 힘이 강화되고 동방의 핵강국, 로켓맹주국으로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보아주시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시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분별을 잃고 우리 공화국을 건드린다면 세계가 알지 못하는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에 의하여 만회할수 없는 중공적과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고 일심단결과 막강한 군력이 있기에 공화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만이 있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백원고개에서 군자땅을 바라보시던 그날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나는 전승의 축포를 볼 때 그 꽃보라 한송이 한송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회고하시었다.

그이께서 감회깊이 외우신것처럼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른 열병광장뒤에는 허리띠를 조이며 일떠세우고 포화속에서 굳건히 다진 자위의 병기창이 있었다.

지난날 구식보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력사적으로 령장들의 각축전장이 되였으며 온강토와 민족이 왜적의 란도질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핵억제력을 비롯한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보유한 자위의 성세로 솟아오른 경이적인 현실에서 사람들은 위대한 주석님의 자위적국방공업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설

최후 승리를 마중가는 동방의 핵강국

은 나라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 성공소식에 접하고 명절처럼 설레이던 지난 5일 아침 출근길에서였다. 지하철도 영광역에 들어선 나의 눈앞에는 어느날과는 달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떠들썩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이 게재된 《평양신문》을 보며 사람들은 저저마다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고 있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야.》

《그이께서 주먹을 흔드시며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의 완전대성공을 선언하시었구만.》

《선군조선의 무쇠주먹이 미국놈들에게 강타를 안겼지. 정말 통쾌해.》

50대 남성이 하는 말에 모두가 수긍하였다. 나도 공감이었다. 나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주먹을 흔드시며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의 완전대성공을 선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문을 현을 다시금 우러러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틀어쥐신 주먹은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힘이 약한 나라, 핵이 없는 나라들을 끌라가며 통략하는 부정의의 왕초, 공화국의 존엄을 짓밟고 삶의 보금 자리를 빼앗으려고 핵전쟁도발책동과 제재와 압박에 광분하는 미국을 거머쥔 정의의 힘이다.

보면 볼수록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는 그 숭고한 화폭에는 그 어떤 제재나 회유, 군사적압박도 단호히 물리치고 공화국의 존엄

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지키시려는 선군령장의 자주적신념과 배짱, 불굴의 기상이 비껴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200여개나 되는 나라들 가운데서 핵을 가진 나라는 열손가락안에 있으며 대륙간탄도로켓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그보다 더 적다. 가지고 싶어도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강권과 압력때문에 가지지 못하는것이 핵이고 대륙간탄도로켓이다. 실사 개발하다가도 적대세력의 강권과 압력에 굴복하여 포기하고 대 개가로 자기의 존엄이 유린 당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행성의 현실이다. 보통의 신념과 의지, 담력으로는 가질수 없는것이 자위의 핵이고 대륙간탄도로켓이다.

불굴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적대세력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박, 핵전쟁위협책동을 단호히 제압하시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에 강위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싶어했던 민족의 세기적 숙망을 이루어주신분, 70여년세월 조선민족에게 분렬의 고통을 강요해온 미국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최후 승리의 직선침로를 열어놓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 조선의 힘이 한장의 사진문헌에 응축되어있다.

천만대적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무비의 담력을 지니고계시는 이 세상 제일 배짱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반세기이상 지속되고있는 반제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최후승리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고성 호

대구경포에 의한 집중포격, 그속에서 불덩이로 화하는 수많은 땅크와 포들, 준비백산하여 아우성치며 폐죽음 당하는 병사들.

이것은 전쟁소설의 한 대목이 아니다.

지난 조선전쟁때 《신공세》의 서막으로 벌려놓은 정형고지전투의 한 장면이다. 실지 있는 이 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공화국의 다부작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에 그대로 재현되기도 하였다.

《신공세》는 대통령자리에 새로 들어 앉은 전쟁사관군 아이젠하워가 조선전쟁에서의 린속되는 참패를 만회하고 살인장군의 《숨세》를 보여주리라는 망상말에 작성한 군사계획이었다.

그러나 살인미치광이의 《신공세》기도는 닳을 울리자마자 조선의 이름없는 야산인 정형고지에서 패배의 서막을 열었다.

당시 미제는 정형고지전투를 《모범전투》라고 자찬하면서 육군, 공군 고급장교들과 《유엔군》종군기자들, 지어는 여러 나라 공사, 령사들까지 끌어 들여 《공산군》을 어떻게 소멸하는가 보라고 흰소리를 치며 《구경》시키는 놀음을 벌리었다.

하지만 많은 전쟁장비들과 무력이 동원된 정형고지전투에서 대참패를 당한것은 미군이였다.

인민군대의 신출귀몰한

전술에 걸려 공격도 해보기 전에 먼저 얻어맞고 대실패로 끝났던것이다.

결국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켜보려고 미국이 고안해낸 《모범전투》가 거꾸로 침략자들을 호되게 답새기는 인민군대의 멋진 싸움을 보여준 세계적인 모범전투로 되였다.

정형고지전투에서의 대참패는 아이젠하워의 《신공세》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그리하여 《최대의 공세》라고 자랑하던 《신공세》는 맥도 못쓰고

추풍락엽의 신세가 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

주저앉고말았다.

전후 60여년의 흘러온 달과 해들에도 미국은 조선전쟁때에 이루지 못한 침략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공화국을 상대로 갖은 침략위협과 제재, 봉쇄 놀음에 매달려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공화국의 단호한 선언과 행동, 강력한 힘에 의해 제풀에 기가 꺾여 주저앉고 패배의 한숨 소리만 내질러온것이 비대한 몸을 믿고 설쳐대던 미국이였다.

지나온 나날들에도 그러하였고 오늘날도 미국은 선군조선의 강력한 힘과 반미최후결전의지에 의해 얻어맞고 멸망의 나락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현 미행정부는 다 낡아빠

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재포장하여 들고나왔다. 이것은 력대로 실패와 수치를 면치 못한 미국의 대조선압살야망을 어떻게 하나 이루어보려는 미국의 단말마적최후발악이라고 할수 있다.

가관은 미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이 아이젠하워의 《신공세》처럼 시작하자마자 공화국의 된매앞에 서리맞은 호박잎 신세가 된것이다.

미국의 면상을 후려친 그 된매가 바로 공화국의 대륙

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이다.

류레없는 제재압박과 사상최대의 군사적위협, 기만적인 대화타령 등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공화국을 어제 보려고 날뛰는 미국의 허세는 그야말로 정형고지를 점령하겠다고 달려들던 60여년전의 그때 모습을 방불케 한다.

아이젠하워가 조선전쟁의 계속되는 패전을 만회하고 이른바 《영예로운 정전》을 위한 모지름끝에 고안해낸것이 《신공세》라던 현 미행정부가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에서 종국적패배의 마지막도장을 찍을 운명에서 벗어나보려고 짜낸 것이 바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그 어떤 두려움과 동요도 없이 끝까지 핵무력강화의 길을 걸으려는 공화국의 드립없는 의지를 과시한 대륙간탄도로켓의 성공적인 시험발사로 하여 나오자마자 메사해지고 겨울날의 무우 앞사귀처럼 후출근해지고말았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의 단번성공으로 공화국은 미국이 짓먹은 힘까지 다 짜내어 만들어낸 날강도적인 《최대의 압박》도 단숨에, 기만적인 《최대의 관여》도 단숨에 무색하게 만들어 놓았다.

어쩌면 60여년전의 아이젠하워의 《신공세》와 현 미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의 시작이 그리도 일맥상통한것인지.

시작을 보면 그 꼴을 알수 있다고 한다.

미국이 전쟁의 운명을 걸고 마지막 힘을 다해 발악적으로 감행하던 《신공세》의 파산과 더불어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패전의 수치스러운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오늘날 선군조선의 핵과 대륙간탄도로켓의 위력앞에 별로 써보지도 못하고 추풍락엽의 신세가 된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처럼 미국이 조선과의 마지막 최후대결전에서 비참한 패자가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본사기자 황진 옥



반제반미대결전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경축하며 7월의 하늘가에 축포가 오른다.

조선에는 행성의 다른 지역 들에서는 볼수 없는 특이하고 귀중한것들이 너무도 많다. 후대들을 위해 국가적인 행사를 크게 마련해주고있는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주요 기념일들에 후대들을 위해 집회를 하고 유희오락을 하는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한 대회가 한 나라의 령도자의 보살핌속에 국가적인 큰 행사로, 온 나라의 관심속에 진행되는 그런 나라는 없다.

조선소년단창립절인 올해의 6월 6일에도 공화국에서는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되어 행성의 이목을 끌었다. 이 성대한 국가적행사에는 지방의 도시는 물론 두메산골의 아이들, 바다가와 섬마을아이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소년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규모가 방대할뿐 아니라 이 대회가 더욱 뜻깊고 의의있는 행사로 된것은 나라의 최고령도자께서 몸소 참석하시여 아이들을 위해 뜻깊은 축하연설까지 해주신것이다.

지금도 대회장에 울리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귀전에 들려온다.

《조선소년단원들의 앞날은 끝없이 양양하며 소년단원들의 앞길에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 사회주의강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풍모와 씩씩하고 명랑한 모습에서 주체혁명의 밝은 래일을 내다보고 있는 우리 당은 소년단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소년단원들의 행복에 넘친 웃음과 찬찬한 미래를 끝까지 지켜줄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가득 담긴 연설을 들으면서 대회에 참가했던 아이들도, 온 나라 인민들도 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격정을 가슴속에 삼키었다.

정깊은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4년 6월 7일 조선소

◎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귀중한것 (17) ◎

후대들을 위한 국가적인 행사



년단 제5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축하문도 보내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영상을 비추고 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의 한 품에 안겼던 소년단원들이 이제 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고 오늘은 그 자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고있는것이다.

2012년 6월에 펼쳐졌던 후대사랑의 감동깊은 이야기도 온 나라가 다 아는 전설같은 이야기이다. 아니 전설에도 이런 이야기의 없다.

그때 조선소년단창립 66돐을 맞으며 평양에서는 2만여명의 소년단체대표들이 참가한 대규모의 국가적행사가 진행되었다. 그 때 아이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신분은 나라의 최고령도자이신 원수님이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대회에 참가할 아이들을 위해 차와 배, 비행기도 보내주시어 아이들은 사소한 불편도 없이 한 나라의 국가대표단 못지않게 최고의 우대를 받으며 평양의 대회장에 오게 되었다. 대회

가 열리던 날에는 원수님께서 물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사랑의 연설을 하시여 그 큰 대회장은 아이들이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차였다. 세상에 놀기 잘하고 웃기 잘하는것이 아이들이지만 이처럼 수천수만명의 아이들이 크나큰 감동에 젖어 저마다 눈물을 흘리던 광경은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것이었다. 아이들을 위해주시는 령도자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그것이 연설 마디마디에 얼마나 진하게 어렸으면 대회장이 눈물바다가 되었을것인가. 그 광경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공연장에서 펼쳐졌다.

그것은 령도자와 아이들의 관계라기보다 친어버리와 자식들의 관계였다.

세상에는 수백개의 나라가 있지만 령도자와 어린이들사이 에 이르도록 친부모, 친자식과 같은 혈연적인 유대가 이어진적이 있었는가.

이름난 소년운동가였던 방정환은 1920년대에 나라없는 슬픔속에서 민족의 후대들을 끝

없이 사랑해줄것을 원하는 피절은 마음을 글줄에 담아 이렇게 썼었다.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더 높게 대접하시오. 어른은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짝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짝을 내리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짝을 위해 키워주어야 그 나무는 뻗어나갈것입니다.》

민족의 이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오늘처럼 아름다운 현실로 꽃피었던가.

후대사랑의 력사를 돌켜보면 항일의 나날 마안산에서 저에 할이 추위에 떨고있는데 내가 백장의 모포를 덮은들 마음이 편하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계셨던 돈 20원, 어머니의 사랑이 정히 어렸이는 그 소중한 돈을 아이들을 위해 내놓으시였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온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긴급히 풀어야 할 문제들은 많고 많았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인민주권의 첫 의정으로 제기

하신 문제는 다음아닌 아이들의 연필문제였다.

그이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요긴한 일은 바로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후대들, 자라나는 아이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는 일이었다.

2009년 설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문필가들에게 안겨주신 만년필에도 미래관, 후대관에 대한 고결한 사랑이 비껴있다. 문필가들에게 줄 만년필에 어떤 글을 새겨 줄것인가를 많이 생각해보다가 《미래를 사랑하라!》라고 써주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시려 눈비사나운 최전연의 산발들을 선군령도의 초강도강행군으로 이어가셨기에 장군님은 전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가슴뜨거운 후대사랑의 새 이야기로 태어났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후대사랑의 력사를 영원토록 흐르게 하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성대한 6월의 축전장을 거듭 마

련해주시는것이다.

아름다움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는 새싹에 부여준 사랑이라고 했다.

마안산추억이 보여주는것처럼, 첫 의정이라는 글밭이 보여주는것처럼,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대축전이 보여주는것처럼 공화국은 이 세상 그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가장 고결한 후대관을 재부로 가지고있다.

10년이 잠깐이고 20년도 멀지 않다.

령도자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소년단원들이 장차 민족의 미래를 떠메고나가는 큰 힘으로 될것이다.

어릴 때는 등산을 한번 한것도 잊지 못한다. 소년단시절에 야영을 한번 갔다와도 사람들은 일생 잊지 못한다.

하물며 비행기를 타고, 열차와 배를 타고 평양에 와서 큰 대회에 참가하여 특별대우를 받은 아이들이 받아안은 체험이 얼마나 큰 힘으로 될것인가.

이 나라의 아이들은 6월의 추억을 평생 간직하고 조국번영의 기동들로 역세계 자라날것이다.

온 나라 아이들의 꿈이 커진다. 나라의 힘이 커지고 미래의 힘이 커진다.

이번에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끝난 다음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린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는데 활영이 끝나자 아이들은 저마다 원수님품에 안겨들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그리고 원수님 타신 차가 떠날 때에는 모두가 만세를 부르며 달리는 차를 따라나섰다. 누가 시킨것도 아니었다. 그 아련한 아이들이 령도자의 사랑의 품이 너무도 자아롭고 그리워 저마다 안겨들고 원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나선것이다. 설사 자기들의 앞에 풍량이 가로놓여있다 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뚫고 원수님품을 찾아갈것이며 원수님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겠나갈것이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찬찬한 미래가 펼쳐진 조선의 현실이고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귀중한 모습이다. 본사기자 김명준

◎ 한 떨기의 아름다운 꽃에도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념원과 리상은 새로 옥종된 꽃에도 비껴있다.

식물학계나 화초부문에서 새로 꽃을 옥종하면 여러가지 의미로 이름을 단다. 옥종학자 자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연구자가 숭상하는 대상이나 인물의 이름으로 명명하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반복화라는 꽃처럼 인민들을 위하여 태어난 꽃, 인민의 행복을 바라는 뜻에서 꽃이름이 생겨난 레는 보기 힘들다.

주제 101(2012)년 9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화초연구소에는 거대한 온실의 풍경을 돌으며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한 온실에는 새로 옥종한 심비디움품종의 꽃이 류달리 눈길을 끌고있었다. 그 꽃은 반복화였다.

연구소의 식물학자들이 꽃피는 기간도 비교적 오래고 추위견딜성이 좋으며 아름다운 란과계통에 속하는 심비디움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옥종한 꽃이었다.

반복화를 보시며 연구사들의 수고를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비디움은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그중 오랜 꽃인데 아마 한 석달동안은 피어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꽃을 많이 재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꽃의 이름에 담긴 사연이 떠오르시는데 화분을 손에 드신채 이 꽃의 이름을 자신께서 반복화라고 지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듣는 연구사들은 감회가 깊어지였다. 바로 몇달전 자신들이 옥종한 새 품종의 심비디움의 이름을 어떻게 달것인가를 생각하고있을 때 그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반복화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였었다.

자신의 념원이며 리상인 인민의 반복을 그려보시며 그것을 꽃의 이름에 담으신것이였다. 본사기자

인민사랑의 력사가 흐른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숭고한 뜻이었고 고귀한 유훈이다.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그이께서는 커가는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행렬추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이어오신 위대한 주석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려보신 강국의 래일, 보다 행복할 인민의 래일을 위해 뿌려놓으신 씨앗들을 알찬 열매로 가꿔가시며 그이께서는 늘 말씀하신다.

수령님들께서 보시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이의 이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수령님들의 유훈

과 념원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굳은 결심과 의지가 응축되어있다.

현대적으로 일떠선 공장에 가시여서도, 동서해의 포구며 과원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인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창조물을 보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언제나 주석님과 장군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신적이 없다.

새로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 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이 궁핍같은 요람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넘친 생활을 누리는데 모습 수령님들께서 보시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하시였다.

나라가 허리띠를 조일 때에도 후대들의 얼굴에 받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비끼지 않도록 극진히 보살피 주시며 더 좋고 훌륭한것을 마련해주시려 늘 마음 써오신 수령님들이시였기에 회한하게 일떠선 야영소와 민들레학습장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돌아보실 때에도 원수님의 심중은 수령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으신 마음이 그처럼 간절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리상과 념원을 현실로 펼

쳐놓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충정의 마음은 이 나라 그 어디에나 뜨겁게 어려있다.

두해전 8월 대동강과 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땅이 꺼지게 주렁진 먹음직스러운 사과들을 만족속에 보고 또 보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홀리신 땀방울이 그대로 열매가 되어 과일대풍이 들었다고,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던 수령님들께 가지마다 주렁진 과일들을 보여드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면서 과일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기본이 좋다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시며 나라가 흥할 징조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하루장에서 물고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것을 보실 때에도, 평성합성 가죽공장과 원산구두공장을 찾았을 때에도 이렇게 회한한 풍경과 개진된 공장을 수령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으신 마음속심정을 피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하신 말씀은 지금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 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부,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입니다.

절절하게 하신 그 말씀에서 사람들은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을 높이 받드시는 원수님의 불같은 인민사랑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던것이다.

언제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정신으로 가슴불태우시는 그이의 손길아래 울해에 만도 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한 려명거리와 평양초등학교, 평양가방공장과 류경김치공장, 금산포자갈가공공장과 금

산포수산사업소, 삼천메 말씀은 지금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 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부,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입니다. 절절하게 하신 그 말씀에서 사람들은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을 높이 받드시는 원수님의 불같은 인민사랑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던것이다.

언제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정신으로 가슴불태우시는 그이의 손길아래 울해에 만도 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한 려명거리와 평양초등학교, 평양가방공장과 류경김치공장, 금산포자갈가공공장과 금

사랑하노라



얼마전 평양에서는 사람들의 대절찬속에 이채로운 공연이 여러날째 진행되었다. 제는듯 한 삼복의 무더위속에서도 공연장소인 인민문화궁전으로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듯이 모여들었다. 그토록 관중의 심금을 틀어

잡은 공연의 출연자들은 과연 누구들인가. 놀랍게도 그들은 장애인들이었다. 정상인도 아니고 전문에 출연자들은 더더욱 아닌 그들이 펼친 공연은 모두의 심장을 틀어잡았고 그 감동이 주는 여운은 자못 크다.

21개 줄이나 되는 가야금을 다룰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무릇 예술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미적파악의 가장 높은 형태인것으로 하여 정상사람들도 성공하기 힘든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안겨주고 이렇듯 인생의 값높은 긍지를 안겨준 고마운 사회와 따사로운 정치, 살뜰한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그 품 떠나면 자신들은 살지 못한다고.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에 안아 보살펴주며 행복과 기쁨만을 안겨주는 사회주의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인민의 집, 운명의 보금자리임을 장애인들은 더욱 뜨겁게 체험하고있다.

그 품에만 살리라 만복의 주인공이 되어 누구나 심장으로 터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 노래의 선창자, 영원한 가수로 살리라

모두를 놀래운 뛰어난 예술기량

아침저녁 아이들의 노래소리 즐거웁고 따뜻한 정 넘치며 화목한 가정 소중한 보금자리 나의 집 이어 ...

손풍금3중주... 출연자들모두가 시력장애자, 청력장애자, 지체장애자들이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종목들이 훌륭했다.

그러나 모두를 놀래운 장애인들의 뛰어난 예술기량은 이 말을 부정하는듯싶었다. 피아노독주 《내 심장의 목소리》(시력장애자 차광국), 민속무용 《시내가에서》(청력장애자 리진혁 외 9명), 혼성4중창 《사회주의락원일세》(시력장애자 배옥림 외 3명), 손풍금3중주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시력장애자 강은혁 외 2명), 외국동화 무용 《백설공주와 일곱명의 난쟁이》(청력장애자 주수양 외 8명)...

사람들속에 장애인이라는 말은 동정과 연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었다. 그것은 장애인들이 지닌 정신육체적약점으로 하여 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것은 물론 사회적약자로 치부되기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은 예술은커녕 노동과 생존의 권리마저 상실하고 하루하루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형편이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장애인들의 처지는 불행하기일썤이다. 말끝마다 《인권》을 떠들면서 《장애인보호금》이요 뭐요 하는 서방나라들에서도 운신하기 힘든 불편한 몸으로 거리에 나앉아 삶의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은 일상사로 되고있다.

이것이 어찌 장애인들만의 심정이라 하겠는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남녀로소의 가슴마다에 품어넘치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보답의 일념이다. 행복이란 결코 물질적향유에만 있지 않다.

무반주속에 시력장애자 박진리의 청아하면서도 그윽한 목소리가 무대에 울려퍼졌다. 순간 관람석은 물을 뿌린듯 정적속에 잠겼다. 무엇이랴 이 름할수 없는 감동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짝 차올랐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늘 부르던 이 노래, 공화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이 노래가 오늘의 무대에서 안겨주는 감화력은 류달랐다.

앞을 보지 못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삼륜차에 앉아 노래를 부르지만 않는다면, 지도교원의 지휘동작을 보며 춤을 추지 않는다면 누가 이들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삼륜차에 앉아 무대가 좁다 하게 화려한 춤물동을 펼쳐가는 무용 《그리움》도 감동적이었지만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공훈예술가 김명숙선생의 가야금독주 《아리랑》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정상사람들도 펼치기 힘든 황홀한 예술의 세계를 장애인들이 손색없이 펼쳐놓는것을 보고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호기심질남, 의혹질남을 품고있던 관중들이 순간에 매혹되어 아낌없는 박수를 연방 보냈다.

세게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은 예술은커녕 노동과 생존의 권리마저 상실하고 하루하루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형편이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장애인들의 처지는 불행하기일썤이다. 말끝마다 《인권》을 떠들면서 《장애인보호금》이요 뭐요 하는 서방나라들에서도 운신하기 힘든 불편한 몸으로 거리에 나앉아 삶의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은 일상사로 되고있다.

이들의 공연은 그대로 사랑의 천국인 조국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사는 장애인모두의 행복감의 분출이였다. 얼마나 고마운 운명의 품인가. 얼마나 귀중한 삶의 요람인가. 인민의 집, 결코 책에 씌어진 글줄이 아니였다. 잘난 자식이건 못한 자식이

이것이 어찌 장애인들만의 심정이라 하겠는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남녀로소의 가슴마다에 품어넘치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보답의 일념이다. 행복이란 결코 물질적향유에만 있지 않다. 진짜 행복은 정에 살고 정에 끌려 사는 인생이다. 인간의 뜨거운 정이 넘치는 세상이 진짜 인간세상이고 행성의 제일 밝고 따스한 요람이다. 하기에 공화국에서 사는 사람이란 누구나 사회주의를 사랑한다.

공화국인민들은 자기의 생활을 끝없이 사랑한다. 사람들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더 아름다운 래일을 위하여 언제나 웃으며 살아간다. 바로 그 아름다운 생활이 자신들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모습에도 력력히 비껴있기에 관람자들은 큰 감동을 금치 못해하고있는것이다.

한점의 빛도 볼수 없는 녀성이 그토록 훌륭하고 능란하게 그들은 온몸으로 웨치고있었다. 공연이 주는 깊은 감동은 이들이 지닌 뛰어난 예술적기량이나 체인 안삼불에만 있지 않다. 공연은 그들의 심장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정의 토로였기에 더더욱 감동적이였다.

그들이 무대우에서 온몸으로, 온몸으로 웨치고있었다. 불구가 되어 인생의 꿈을 접었던 자기들에게 삶의 희망을

이들의 공연은 그대로 사랑의 천국인 조국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사는 장애인모두의 행복감의 분출이였다. 얼마나 고마운 운명의 품인가. 얼마나 귀중한 삶의 요람인가. 인민의 집, 결코 책에 씌어진 글줄이 아니였다. 잘난 자식이건 못한 자식이

이들의 공연은 그대로 사랑의 천국인 조국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사는 장애인모두의 행복감의 분출이였다. 얼마나 고마운 운명의 품인가. 얼마나 귀중한 삶의 요람인가. 인민의 집, 결코 책에 씌어진 글줄이 아니였다. 잘난 자식이건 못한 자식이

이것이 어찌 장애인들만의 심정이라 하겠는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남녀로소의 가슴마다에 품어넘치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보답의 일념이다. 행복이란 결코 물질적향유에만 있지 않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사회주의를 몸과 맘 다 바쳐 빛내이리라. 사랑하노라 목숨보다 귀중한 행복의 요람, 운명의 집 우리의 사회주의. 오직 그 품에만 살리라! 장애인예술인들의 공연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의 흥분된 얼굴마다에서는 이런 심장의 토로가 진하게 풍겨나고있었다.

그들은 온몸으로 웨치고있었다



지난 5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예술인들로 구성된 평양장애자교류단이 런던을 비롯한 영국의 여러곳에서 공연을 진행한 소식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의 공연은 서방인론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선전만 들어오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움과 감동 그자체라고 할수 있었다.

취적인 연주와 조금란교원의 풍부한 표현력이 잘 결합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리선영교원은 예술소조원들에 대한 기술지도나 연출, 안무는 전문교원들이 맡아하였으며 악기와 의상 등 연습과 공연에 필요한 모든것들은 다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오직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이번 공연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찌 장애인들만의 심정이라 하겠는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남녀로소의 가슴마다에 품어넘치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보답의 일념이다. 행복이란 결코 물질적향유에만 있지 않다. 진짜 행복은 정에 살고 정에 끌려 사는 인생이다. 인간의 뜨거운 정이 넘치는 세상이 진짜 인간세상이고 행성의 제일 밝고 따스한 요람이다. 하기에 공화국에서 사는 사람이란 누구나 사회주의를 사랑한다.

이것이 어찌 장애인들만의 심정이라 하겠는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남녀로소의 가슴마다에 품어넘치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보답의 일념이다. 행복이란 결코 물질적향유에만 있지 않다. 진짜 행복은 정에 살고 정에 끌려 사는 인생이다. 인간의 뜨거운 정이 넘치는 세상이 진짜 인간세상이고 행성의 제일 밝고 따스한 요람이다. 하기에 공화국에서 사는 사람이란 누구나 사회주의를 사랑한다.

하다면 평양장애자교류단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공연을 통하여 보여주거지 한것은 무엇이겠는가.

영국을 방문한 예술인들은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예술소조원들이다. 이들속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고 듣지도 말도 할수 없는聋인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펼친 공연은 그들이 과연 장애인들이 맞는지 하는 의심을 자아낼 정도로 성공적이였다.

음악을 들을수 없는聋인들은 교원의 지휘에 의거하여 춤을 춘다.

이것이 어찌 장애인들만의 심정이라 하겠는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남녀로소의 가슴마다에 품어넘치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보답의 일념이다. 행복이란 결코 물질적향유에만 있지 않다. 진짜 행복은 정에 살고 정에 끌려 사는 인생이다. 인간의 뜨거운 정이 넘치는 세상이 진짜 인간세상이고 행성의 제일 밝고 따스한 요람이다. 하기에 공화국에서 사는 사람이란 누구나 사회주의를 사랑한다.

이것이 어찌 장애인들만의 심정이라 하겠는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남녀로소의 가슴마다에 품어넘치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보답의 일념이다. 행복이란 결코 물질적향유에만 있지 않다. 진짜 행복은 정에 살고 정에 끌려 사는 인생이다. 인간의 뜨거운 정이 넘치는 세상이 진짜 인간세상이고 행성의 제일 밝고 따스한 요람이다. 하기에 공화국에서 사는 사람이란 누구나 사회주의를 사랑한다.

이것이 어찌 장애인들만의 심정이라 하겠는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남녀로소의 가슴마다에 품어넘치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보답의 일념이다. 행복이란 결코 물질적향유에만 있지 않다. 진짜 행복은 정에 살고 정에 끌려 사는 인생이다. 인간의 뜨거운 정이 넘치는 세상이 진짜 인간세상이고 행성의 제일 밝고 따스한 요람이다. 하기에 공화국에서 사는 사람이란 누구나 사회주의를 사랑한다.

꿈과 희망을 꽃피워가는 장애인들

이들은 평상시 예술소조활동을 통하여 많은 예술기량들을 련마하여왔으며 국제장애자의 날(12월 3일)을 비롯하여 여러 계기들의 적지 않은 공연경험

도 가지고있다. 지난 2015년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영국과 프랑스에서 순회공연은 이들이 처음으로 진행한 해외공연이기도 하였다. 예술소조원들은 두번째로 되는 해외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화국의 옹바른 장애인보호정책에 의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세상에 자랑

《미인과 야수》의 주인공역을 맡은 주수양은 긴장으로 선생님의 신호를 놓칠까봐 걱정되었지만 춤을 통해 우리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싶었다고 자기 심정을 표현하였다. 이들이 출연하는 무용작품을 본 관람자들은 《그들이 듣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믿을수가 없다.》고 하면서 커다란 놀라움과 감동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맹인인 강은혁은 정상인인 조금란교원과 함께 손풍금2중주에 출연하였다. 강은혁의 진

이것이 어찌 장애인들만의 심정이라 하겠는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남녀로소의 가슴마다에 품어넘치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보답의 일념이다. 행복이란 결코 물질적향유에만 있지 않다. 진짜 행복은 정에 살고 정에 끌려 사는 인생이다. 인간의 뜨거운 정이 넘치는 세상이 진짜 인간세상이고 행성의 제일 밝고 따스한 요람이다. 하기에 공화국에서 사는 사람이란 누구나 사회주의를 사랑한다.

이것이 어찌 장애인들만의 심정이라 하겠는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남녀로소의 가슴마다에 품어넘치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보답의 일념이다. 행복이란 결코 물질적향유에만 있지 않다. 진짜 행복은 정에 살고 정에 끌려 사는 인생이다. 인간의 뜨거운 정이 넘치는 세상이 진짜 인간세상이고 행성의 제일 밝고 따스한 요람이다. 하기에 공화국에서 사는 사람이란 누구나 사회주의를 사랑한다.

이것이 어찌 장애인들만의 심정이라 하겠는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남녀로소의 가슴마다에 품어넘치는 고마움의 인사이고 보답의 일념이다. 행복이란 결코 물질적향유에만 있지 않다. 진짜 행복은 정에 살고 정에 끌려 사는 인생이다. 인간의 뜨거운 정이 넘치는 세상이 진짜 인간세상이고 행성의 제일 밝고 따스한 요람이다. 하기에 공화국에서 사는 사람이란 누구나 사회주의를 사랑한다.

감동을 주는 훌륭한 공연

참으로 감동적이고 수준이 높은 공연이였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도 아니고 앞을 못보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어찌면 그렇게 높은 예술적기량을 소유할수 있는지 정말 놀라기만 하다. 공연을 보면서 그들이 혹시 예술을 전문하던 사람들이 아니였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그들모두가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일군들

의 방조속에 저렇듯 훌륭한 예술적기량을 소유하게 되었다니 공화국의 옹바른 장애인보호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다시금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고마운 우리 제도, 위대한 내 나라에 나의 온넛을 바쳐가겠다. 국가과학원 실장 김철현

모두의 꿈을 이루어주는 우리 조국

모든 출연자들이 다 그러하지만 15살 난 박진리의 공연에서 특별히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쩌면 목소리가 저리도 곱고 전문예술인들도 감탄할 정도로 라악기를 그리도 잘 칠수 있는지, 정말 놀라왔고 감탄했다. 그보다 더 가슴 젖게 하는 것은 예술적재능의 싹을 일찍부터 찾아내어 저렇듯 훌륭히 키워주고 내세워준 선생님들과 조국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인민이 주인된 우리 나라에서는 정상인인건, 장애자들이건 누구나 자기들의 희망과 꿈을 꽃피워가고있다.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내 나라, 그 아름다운 조국이 우리모두가 안겨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임을 가슴뭉클하게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평양시 서성구역 상신동 강련희

본사기자 박철남

《푸에블로》호와 《레인 빅토리》호

사람이 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면 패전의 역사도 《보물》로 여겨지는 모양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공화국 주민들을 원자탄공갈로 끌어가는데 리용했던 미국상선 《레인 빅토리》호를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이 상선을 가져다놓고 그 무슨 《홍남철수의 기적과 평화의 의미》를 새길수 있는 기념공원을 만들겠다.》는것이다.

《레인 빅토리》호로 말하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이 인민군대의 재진격으로 패주할 때 그 무슨 《홍남철수작전》에 동원되어 당시 7천여명의 공화국 주민들을 태우고 달아났던 미국상선의 하나이다. 현재는 패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새겨안은 채 미국 로스앤젤스의 한 항구에 정박해 달갑지 않은 《력사 박물관》으로 리용되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제 《에물단지》가 되어 미국정부의 재정지원마저 끊겨 《기금》으로 겨우 운영되고있는데 그나마도 자칫 외부에 고철로 매각될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홍남철수작전》때 동원되었던 또 하나의 미국상선인 《메러디스 빅토리》호처럼 이 력사의 폐기품도 고철로 팔려 영영 력사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하고있는것이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레인 빅토리》호는 패주하는 미제가 원자탄공갈로 공화국 주민들을 남조선에 끌어감으로써 수많은 흠어진 가족을 만들어 낸 괴로 얼룩진 배이다. 우리 민족의 원한과 분노를 담아 산산이 폭파해버려

도 시원치 않음 최악의 배를 《평화의 의미》니 뭐니 하며 거역의 혈세를 들여 끌어들이려는것은 민족의 피와 땀이라고는 요물만 큼도 없는 쓸개짜진 역적들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참화와 재난만을 들썩은 미국을 하내비로, 《은인》으로 섬기고 피를 나눈 동족은 압살하지 못해 발광하는 남조선당의 처사야말로 민족의 수치이다.

공화국은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전리품으로 삼고 미국을 받아래로 끌어보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이처럼 오만하고 방자한 미국의 군사적 《힘》이 처절한 비운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동족의 장거와 미국의 폐기품을 억대의 돈을 주고 사들여 종미굴종을 고취하려는 남조선당

국의 추태는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것인가. 승미에 눈이 멀고 친미에 환장하면 이렇듯 날강도도 구세주로 찬양하고 파철덩어리도 보배덩어리처럼 여기는 머저리가 되고만다.

《레인 빅토리》호를 가져다놓으면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수 있다.》고 떠들고있는것이 이전 보수 《정권》에서 《천안》호를 《안보교육장》으로 만들어놓고 동족대결의 복통을 요란하게 두드려댄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남조선당국은 《레인 빅토리》호를 끌어들이는 경우 온 민족과 후세로부터 천하의 매국노로 두고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너절한 매국배족적인 구걸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

공화국의 대륙간란도케트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이후 남조선 《국회》가 그 무슨 《규탄성명》이요 뭐요 하면서 분주당을 띄워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 《국회》는 《북의 대륙간란도미 싸일발사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있다.》느니, 《〈한〉반도의 군사적긴장을 유발하는 일체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느니, 《북정권의 파란과 영구소멸까지 초래할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느니 뭐니 하는 《대북규탄 결의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편승한 쓸개짜진 정치간상배들의 무엄한 도발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의 대륙간란도 로케트시험발사는 장장

이전 《대결국회》의 복사판

방식회사 로조파괴로부터 시작된 로동계 요시찰명단이 박근혜집권때에 와서 로동계를 넘어 문화계로, 전 사회로 확대되었다고 까밝혔다.

당국이 사회의 악폐가 된 요시찰명단작성을 끝장내며 불법부당한 요시찰명단을 작성해온 업체들을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남조선 《국회》가 진정

반세기이상 우리 민족에게 가해오는 미국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당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을 우리 민족의 자량으로 여기고있으며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이 이루어질것을 바라고 있다. 《국회》라고 하면 마땅히 민심의 이러한 흐름을 똑바로 간파하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남녘민심에는 아랑곳없이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는 악법체택과 동족을 헐뜯는데 앞장서고있는 남조선 《국회》야말로 역사를 앞으로가 아니라 거꾸로 돌리려는 사 이비 《국회》라 하지 않을수 없다.

용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한피줄을 나눈 동족을 악랄하게 걸고들며 북남대결을 사촉하는 현 남조선 《국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남조선 《국회》가 진정

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과 통일을 바란다면 이 땅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미국부터 문제시하는것이 옳은 처사일것이다.

이 땅에서 참혹한 핵재난을 막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공화국의 핵무력강화조치들을 고마워 할 대신 오히려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동족을 헐뜯는 《규탄성명》 발표놀음을 벌려놓은 남조선 《국회》가 박근혜 《정권》시기의 《대결국회》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남조선 《국회》는 민심을 외면하고 동족대결에 광분하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역적패당의 비참한 운명에서 교훈을 찾고 심사숙고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겨레의 요구를 외면하고 리익을 해치면서 지금처럼 《대결국회》로 계속 살겠는가, 아니면 민족의 지향을 따르겠는가.

남조선 《국회》는 이제라도 제 정신을 가지고 옳바로 처신해야 하며 겨레와 민족의 념원인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 영 진

《유신》 독재자를 찬미하는 추악한 망동

최근 남조선의 우정사업본부가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정희의 생일 100년이 되는 올해 9월로 계획되어있던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가관은 몇줄 안되는 보수패거리들이 멘집을 하며 길길이 날뛰고있는것이다.

박정희우표발행계획은 남조선의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박근혜를 비롯한 청와대의 조종에 따라 지난해 9월 각계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통과시켰던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된 후 역도년대에 대한 환멸과 적폐청산기운이 고조되자 철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패거리들은 《전임(정부)의 결정이라고 백지화하는것은 납득할수 없

다.》, 《국회에서 우표발행철회리유를 따져야 한다.》고 악을 써대는가 하면 박정희역도를 《산악회와 근대화화 성공시킨 주역》,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지도자》로 추어올리면서 《박근혜탄핵때문에 박정희업적이 훼손되고있다.》느니, 《박정희우표발행은 우리세대의 의무》라느니 하는 역스러운 꾀변들을 늘어놓고있다.

보수야당패거리들의 발악적추태는 박정희우표발행계획취소가 박근혜탄핵을 발단으로 무섭게 일고있는 남조선 각계층의 적폐청산, 반보수투쟁기운을 더욱 고조시키는 촉매제가 되어 지리멸렬의 위기에 처해있는 저들의 숨통을 바싹 조일수 있다는 국도의 불안감에서 출발한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은 민심과 력사에 대

한 우롱이고 도전이 아닐수 없다.

박정희라고 하면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탈한 군사장래이고 《유신》독재로 악명을 떨친 극악한 파쇼살인광이다. 더우기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왜왕에게 《충성형서》를 쓰고 일본군중위로 복무하면서 무고한 조선의 애국자들을 체포, 학살하는데 앞장섰으며 집권기간에는 굴욕적인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천추에 용납 못할 과거죄악을 백지화해버린 추악한 민족반역자, 특등사대매국노이다.

이러한 독재광, 친일매국노를 내세우려고 력사교과서 《국정화》놀음을 벌리다 못해 《생일기념우표》라는것까지 발행하려 했던것은 바로 박근혜년과 보수패당이 감행한 가장 추악한 범죄의 하나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야당패거리들이 《기념우표》발행계획취소에 반발해서서서 악을 써대고있는것은 남조선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인것이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유신》잔당, 보수패당이야말로 얼마나 지독하고 흉악무도한 무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유신》독재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으면 박근혜의 집권 4년과 같은 치욕과 불행의 암흑시대도 재현될수밖에 없다.

남조선각계층은 천하의 악녀 박근혜년을 비호하고 《유신》독재자를 찬미하며 보수세력의 부활을 위해 발악하는 역적무리들의 망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짓밟개버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리철남

《로동기본권 보장하라!》

남조선 시민사회계가 요구

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시민사회계 인사 100명이 17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업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요시찰명단폐지와 대량해고금지, 로조활동의 권리보장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박정희 《정권》시기인 1978년 동일

방식회사 로조파괴로부터 시작된 로동계 요시찰명단이 박근혜집권때에 와서 로동계를 넘어 문화계로, 전 사회로 확대되었다고 까밝혔다.

당국이 사회의 악폐가 된 요시찰명단작성을 끝장내며 불법부당한 요시찰명단을 작성해온 업체들을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남조선 《국회》가 진정

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2017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만도 2만 713명의 하청로동자들이 해고되었으며 해고되지 않은 로동자들은 업체로부터 구조조정과 무급휴직, 임금삭감을 강요당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본사기자



신성한 교육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최근 남조선에서는 진보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있다.

남조선의 현 《정권》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 조처회》공약을 지키지 않고 우유부단하고있는데 격분한 전교조는 지난 6월 2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긴급소집하고 초불민심을 우롱한 당국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합법화를 쟁취할 때까지 철야농성투쟁을 멈추지 않을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 《법외로 조처회》, 《교사로 동 3년보장》, 《교원로조법개정》 등의 구호를 들고 보다 강도높은 투쟁에 돌입하였다.

남조선 초, 중,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전교조는 교육의 민주화, 교육환경개선, 통일교육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남조선당국의 반동적교육정책을 반대하

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력사관과 통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줄기차게 투쟁하여왔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각성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는 전교조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리명박, 박근혜보수패당은 전교조의 의로운 교육활동과 민주화운동을 방해하고 각방으로 탄압을 하였을뿐아니라 악명높은 《유신》파쇼독재자의 후예인 박근혜년을 끝끝내 합법적인 전교조를 《불법로조단체》로 비법화하는 망동을 부렸다.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패당의 비법화책동은 참다운 교육에 대한 극악한 교살행위이며 교육의 신성한 권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파쇼적폭거이다.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는 교원들을 탄압박해하는것은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억제하는 극악무

도한 범죄이다.

신성하고 숭엄한 교단을 파쇼화하고 후대들을 기형적인 정신적불구로 만들것을 강요하는 반동적인 《정권》은 민심의 지탄을 면할수 없다.

전교조를 비법화하는 망동을 저지른 박근혜역도의 비참한 말로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전교조의 합법화실현문제는 단순히 교원로조를 되살리는데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수역적패당의 파쇼적통치후과를 말끔히 청산하고 초불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남조선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새 봄을 안아오기 위한 심각한 정치적문제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자주와 민주, 통일운을 선도하는 전교조의 의로운 교육활동과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합법화쟁취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명 성

범죄의 흑막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집권시기의 《국정통단 사건》자료들이 계속 드러나 사회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청와대에서 박근혜집권시기인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사이 작성한 총 1361건에 달하는 문건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청와대문건들에는 박근혜집권시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삼각화예술인요시찰명단》문 제, 《세월》호 참사문제 등 추문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도한 내용들이 대부분을 이루고있으며 언론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리용하고 《남조선일본부위안부의》, 《력사교과서 국정화》추진 등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은 나머지 1107개의 문건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개하

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최순실 추문사건의 진상이 더욱 명백히 밝혀질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 전 정무수석비서관 조운선 등 청와대핵심공범자들의 죄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검찰조사와 재판들에서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들이 계속 나오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년의 모든 죄행을 전면부정하면서 뺄칠내기를 해오던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역도가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박근혜역적패당이 저지른 엄청난 반민족적죄악은 절대로 감출수 없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모든 면에서 무능했던 박근혜 《정권》이 증거인멸도 어설프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 《정부》였던것이 맞는

가.》, 《역시 박근혜 《정권》은 탄생하지 않았어야 할 《정권》이다.》, 《최순실의 통간도 우연은 아니다.》고 하면서 《이렇게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적폐청산을 못해낸다면 말서서 《대통령》 기록물까지 넘겨주면서 로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전례는 없었다.》느니, 《이번 문건공개는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느니 하고 고야대면서 악을 써대고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박근혜역적패당의 최악이 날날이 드러날수록 그 불동이 저들에게까지 튀어 날가 두려워 불안에 떨며 어떻게 하나 그것을 막아 보려 발악하는 보수패당의 가련한 몰골이 그대로 비겼것이라 하겠다.

보수패당이 아무리 모지름을 써도 박근혜패당의 반민족적죄악은 절대로 가리움수 없으며 이미 민심의 버림을 받고 력사의 시궁창에 깊숙이 빠진 저들의 운명을 건질수는 없다.

본사기자 서 희

반발해나서고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느니,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 기록물까지 넘겨주면서 로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전례는 없었다.》느니, 《이번 문건공개는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느니 하고 고야대면서 악을 써대고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박근혜역적패당의 최악이 날날이 드러날수록 그 불동이 저들에게까지 튀어 날가 두려워 불안에 떨며 어떻게 하나 그것을 막아 보려 발악하는 보수패당의 가련한 몰골이 그대로 비겼것이라 하겠다.

보수패당이 아무리 모지름을 써도 박근혜패당의 반민족적죄악은 절대로 가리움수 없으며 이미 민심의 버림을 받고 력사의 시궁창에 깊숙이 빠진 저들의 운명을 건질수는 없다.

본사기자 서 희

남의 손으로 불덩이를 쥐게 하는 파렴치한 술책은 통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비상히 높인 대륙간탄도로켓트 《화성-14》형 시험발사의 성공은 우리 민족에게는 대경사로, 침략자 미국에는 악몽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심장부를 겨누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트가 어느 시각에 보복의 불벼락을 들뜨우겠는지, 다음에는 또 어떤 《선물보따리》를 받아안게 되겠는지 몰라 미국통치배들속에서 절망의 비명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지금 미국언론들은 《북핵문제》 때문에 트럼프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북에 대한 제재가 먹여들지 않아 신경이 곤두섰다고 떠들고있다.

괴이한것은 미국이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고있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대륙간탄도로켓트를 보유하게 된 책임은 《동상이몽한 중국에 있다》, 《미국은 중국에 속히 왔다》고 고아대면서 그 불뿔을 해대는 한편 중국남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작전 재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중국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코트》 적용 등의 카드를 꺼내들고 중국에 대한 압박 공세를 들이대고있다.

미국회 상원은 13일 《북조

선조력자 책임법》을 채택하고 우리와 연계하고있다는 중국의 금속, 철광, 강철, 무역 부문 10대기업을 제재대상으로 결정, 선포하였으며 하원은 사법성을 동원하여 우리와 연계하고있는 중국무역회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결정하였다. 한편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에 대한 고율의 관세와 수입할당제를 적용할것도 계획하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트 《화성-14》형 시험발사가 성공한 이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우리에게 대한 중국의 영향력행사에 로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북의 위협은 전세계가 맞아야 할 안보문제》, 《미국이 직면한 최우선 문제》라고 떠벌인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

특히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싸드》반입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게 하는것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2중3중으로 들이대고있는가 하면 조선과 중국이 해킹으로 미국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다고 생트집까지 걸고있다.

분노한 중국은 《조선반도핵 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대결정책에 있다》, 《미국은 핵문제를 중미관계의 인질로 삼지 말아야 한다》, 《중

국은 미국을 위한 지뢰제거자가 될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화과 협상을 통한 핵문제해결》을 내들고 미국의 대조선추가제재요구에 반대해나서고있다.

미국이 중국을 우리에게 대한 제재강화에 몰아대고있는것은 저들에게 우리를 압박할 힘이 더는 없다는데로부터 나오는 아우성이거나 같다.

제가 꺼리는 일은 남도 꺼린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의 핵무력강화조치에 대해 《중국책임론》을 떠드는것은 제손이 벨가봐 팔짱을 끼고 남의 손으로 불덩이를 쥐게 해보려는 파렴치하고 교활한 술수이다.

우리의 전략무기들은 우리와 교전중에 있는 미국을 대상으로 개발완성한것이다. 우리가 《절대병기》인 수소탄과 《보이지 않는 핵추진기》인 전략잠수함탄도탄은 물론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첨단문인 대륙간탄도로켓트까지 보유한것은 끊임없는 핵공감로 우리를 핵무력강화해오며 떠민 미국의 《공로》이다.

핵문제해결의 열쇠는 중국의 손에 있지 않다. 핵문제는 조미사이의 문제이므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달려있다, 방울을 단자가 방울을 때

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것 같다.

자주적대가 확고히 선 우리에게 그 어떤 나라도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다는것을 모르고 우매하게 놀아대고있는 미국이 참으로 가련하다.

우리의 길은 세계를 향하여 수백수천갈래로 뻗어있지만 세계가 우리를 압박할수 있는 《통로》는 그 어디에도 없다.

모든 나라에는 자기의 자존심과 핵심이익이 있고 자기식의 전략적타산이 있다. 이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미국을 위해 뛰어다니는 나라의 숨미공미에 빠져까지 찌든 몇몇 줄개나 라들밖에 없다.

미중의 전략적리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그 어떤 사태발전이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면 그만큼 중국에는 좋은것으로 된다는것은 변증법이다. 《싸드》를 두고 위생론의 중국견제와 베이징의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이 충돌하고있는것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중국의교일군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치가 걸음로는 북을 겨냥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향할것이라는 데 대해 《항상이 갈증을 추는 의도는 패왕을 죽이려는데 있다》는 고사로 불만을 나타

내고있다.

우리의 핵무력이 미국의 대 중국포위전략에 파렬구를 내고 지역의 패권을 노린 미, 일, 남조선 《군사동맹》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철폐이려는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해양침략세력과 대륙방위세력의 신행전이 표면화되고있는 때에 미국이 중국더러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해치는 일을 하라고 강박하는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것은 물론 장구하고 심각하며 회복하기 힘든 엄청난 손실을 강요하는것으로 된다.

일찌기 중국의 문호 로신은 한사람의 행위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자신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행위처럼 치졸한 행위는 없다고 하였다.

대양건너 미국의 압박에 떠밀리워 이마를 맞대고 사는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 좋을것이 뉘뿔도 없다는데 대해서는 압록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노는 어린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미국이 그 누구를 통하든, 단독으로 강행하든 새로운 제재와 압박조치를 취할수록 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강한 핵단추, 보다 무서운 로켓트단추를 누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내세워 우리를 압박한다고 하여 조중 두 나라 인민이 반제반미항전을 통해 피로써 맺은 우의와 친선의 전통을 절대로 깨뜨릴수 없다. 력사의 주인이며 창조자인 조중인민이 쓴 우의와 친선의 전통적인 력사는 미국 같은 강대국가가 무례무도하게 놀아댄다고 하여 지워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중국내에서 대조선제제도수를 더욱 높이라는 미국의 강박에 반발하여 《중국은 그 어느 나라의 국내법에 따른 결정을 집행하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내정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한다》, 《조선과의 혈맹관계가 유지되고있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자주적국가의 자존심과 력사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 누구를 저들의 파수군, 저들이 체적으로 때려모는 마차로 삼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망신과 배척밖에 당할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조남수



최근 미국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날마다 비린칭을 돌구며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권리행사인 대륙간탄도로켓트 시험발사를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위반》으로,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몰아붙이면서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높여보려 하고있는가 하면 무분별한 군사적위협소동에 광란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파렴치하고 비렬한 미국의 《위협》과 《도발》라령이지만

혹백을 전도하는 그 무슨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데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다.

농고보면 주권국가의 자위적인 로켓트시험발사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과 《도발》로 된다는것은 유엔헌장이나 그 어떤 국제법전에도 규정된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공화국에 앞서 이러한 시험을 먼저 진행한 나라들이 유엔안보리사회에서 문제시된것은 단 한번도 없었다.

공화국의 자위적인 대륙간탄도로켓트시험을 문제시하면서 그 무슨 유엔결의 《위반》으로 몰아가는것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강행하고있는

반공화국압살책동의 한 고리이다.

력사적으로 볼 때 이미 백수십여년전부터 조선반도에 눈독을 들이고 침략행위를 일삼아온 미국은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조선전쟁을 도발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뜨웠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옹당한 교훈을 찾은 대신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버리

지 않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뿐만아니라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박소동에 매달리며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고 《붕괴》시키려고 미쳐날뛰었다.

하여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았고 공화국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련의 고비들을 헤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달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소동을 끝장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득불 공화국은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로 온갖 간난

신고를 이겨내면서 자위의 억제력을 갖추게 된것이다.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타격수단들은 다름아닌 불구대천의 원수 미국을 겨냥한것으로서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에 종지부를 찍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파산을 불러오게 되는것으로 하여 미국의 심기를 몹시 불안하게 하고있다.

하여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강화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미국은 불에 덴

히 강화되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을 감히 유엔과 세계의 이름으로 결코 단언이 아닐수 없으며 가스통기 짝이 없는 날강도적책변이다.

결코 미국이 유엔과 세계를 대표하는것이 아니며 같은 일을 놓고 누가 하면 정당하고 누가 하면 부당하다는 식의 처사는 현 시대에서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는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공화국의 핵시험과 탄도로켓트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지난

시기 유엔에서 조작된 부당한 대조선결의들은 칠두칠미 미국이 저들의 침략적리해관계에 따라 만들어낸 이중자대에 근거하여 조작한것으로서 공화국은 언제 한번 그것을 인정한적이 없으며 앞으로 마찬가지일것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독점하고 제멋대로 날치며 세계의 제왕노릇을 하면서는 영원히 지나갔다.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을 결코들며 강도높은 제재와 군사적압박소동으로 어찌보려 하기에 앞서 미국은 자기 처신이나 바로하고 대륙간탄도로켓트 《화성-14》형의 조준경안에 들어있는 제 운명부터 걱정해야 할것이다.

김규혁

진보정당 강제해산은 박근혜적폐의 하나

남조선에서 박근혜적폐 무리들이 도처에 쌓아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개혁, 새 정치를 갈망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있는 속에 최근 새로운 진보정당을 내오기 위한 진보세력들의 활동이 한창차게 벌어지고있다고 한다.

지난 9일 남조선진보세력들이 《국회》회관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인 《새민중정당》(가칭)을 내오기 위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것은 이를 보여 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이날 진행된 결성식에는 《한국진보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대회를 비롯한 각계층 운동단체들을 대표하여 25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가하였으며 오는 9월경에 정식 창당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창당준비위원회는 결성 선언문에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변화된것은 크게 없다고 하면서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된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시대》, 《자주와 평화, 통일의 나라》를 세워나갈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빈민 등 광범한 계층의 단결을 이룩하고 민중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당의 활동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새민중정당》창당을 주도하고있는 핵심세력은 박근혜집권시기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세력들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각계는 진보정당의 창당은 시간문제라고 하며 그들

의 활동에 각별한 주목을 돌리고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통합진보당은 2012년 4월에 진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13개 의석을 확보하였고 그해 12월에 있는 《대통령》선거때에는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우고 박근혜와 정면대결함으로써 남조선안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바있다.

이에 질겁한 박근혜보수집권세력은 각계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19일 저들의 권모술수로 당선된 2년이 되는 날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던 통합진보당을 끝내 해산해치우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하였다.

당시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사회의 정의와 민생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진보정당을 불법부당하게 강제해산해치운 전대미문의 파쇼적만행을 경악을 금치 못해하였다.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온 의로운 당을 《헌법재판소》를 내세워 강제해산시킨것은 남조선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서 파쇼와 동족대결, 반인민적인 정책에만 매달리는 보수집권세력의 추악한 정체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근로하는 인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합법적정당활동의 자유도 말살하는 남조선이야말로 세계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최악의 인권불모지이며 폭력으로 정당해산의 만행까지 저지른 박근혜역적정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용서받을수 없다.

사상은 결코 강요할수도 철폐로 묶을수도 없다. 자주와 민주에 살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려는것은 남조선민심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남조선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이 출범하려 하는 것도 그 반영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문수물놀이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근로자들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요술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뛰어난 예술적재능을 발휘하여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요술의 우수한 전통을 창조하여왔다. 요술은 사람의 손재간과 기지재조작에 의하여 사물현상을 시각적으로 달리 보이게 하는 교예예술의 한 형태이다. 우리 나라에서 요술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세나라 시기에는 대단히 발전되어 이웃나라에까지 알려졌다. 세나라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사람들속에서는 손재주나 기재를 가지고 형상한 재치있는 요술종목들이 창조되었다. 고려 시기에 우리 인민들은 불타루기기술과 과학적원리에 토대하여 요술종목들

을 더욱 다채롭게 발전시켰다. 《고려사》에는 의종왕이 레성강에서 수회(물속에서 진행되는 교예종목)를 비롯한 여러 놀이들을 구경할 때 한 광대가 불을 입에 머금었다가 토하는 《귀신놀이》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말기까지 민간광대들의 예술활동에서 불타루기, 칼삼키기와 같은 요술종목들은 보편적인 공연종목이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고려말기의 문인 리색이 지은 시 《구나행》을 보면 알수 있다. 불타루기는 입에 발화성물질을 물고있다가 불을 달고 내뿜는 요술이며 칼삼키기는 민첩한 손동작으로 마치 칼을 입으로 삼키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재치있는 일반요

술의 하나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요술은 더욱 발전하였으며 그 종목도 다양해졌다. 《영조실록》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한 사람이 종이를 오려 만든 노끈으로 단단히 매듭을 지어 방석을 덮어놓은것이 스스로 풀리게 하는 노끈매듭풀기, 글을 써서 봉인한것을 알아내는 글자알아맞추기요술, 5푼짜리 돈이 50전으로 되게 하는 돈재주요술이 있었다. 근대에 이르러 요술은 《얼른》이라고 불리우면서 민간예술인들인 남사당패의 주요종목으로 되었는데 《얼른》이란 말은 요술사의 빠른 손재간으로 관중들의 시각을 《얼른 얼른》하게 하여 그들의 눈을 속인다는 뜻에서 불리

운 말이라고 한다. 다양한 형식의 중세요술을 보면 현대요술에서 쓰이는 여러가지 손재주기능과 기지재용기술, 물리나 화학의 원리들이 적지 않게 적용되었음을 알수 있으며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슬기와 창조적재능을 느낄수 있다. 우리 요술은 일찍부터 인민들의 사랑속에 부단히 발전하여왔지만 해방전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으로 인하여 빛을 잃게 되었다. 해방후 요술은 인민들이 사랑하는 교예종목으로 새롭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오늘은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일류급의 요술로 주제예술의 화원을 더욱 빛내고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윤광혁

민족문화유산 - 개성의 삼뎀모래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 가운데는 개성의 삼뎀모래찜도 있다. 얼마전 우리는 개성시인민위원회 보건국 국장 령정철을 만나 삼뎀모래찜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 자 :** 오래전부터 개성지방사람들이 삼뎀모래찜을 해왔다고 하던데. **령정철 :** 그렇다. 삼뎀모래찜터를 일명 삼대미라고도 한다. 삼대미는 개성시 동대문밖 개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길게 펼쳐진 모래밭을 두고 하는 말이다. 특별히 모래가 많은 내라고 하여 그 이름을 사천이라고도 부른다. 사천의 약모래는 천마산과 회악산, 용암산, 희망산의 천봉만악퇴부리를 씻으며 빠르게 흘러내리는 물살이 몰아온 것이다. 여기에 울창한 수림속에서 새어나오는 진액까지 합쳐져 오래전부터 약모래로 소문이 자자하다. **기 자 :** 삼뎀모래찜의 약

효과 치료원리에 대해 알고 싶다. **령정철 :** 삼뎀모래찜터의 모래에는 마그네슘, 철, 동, 구소, 망간, 칼슘을 비롯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있어 신경통, 관절염, 만성위염, 산후탈, 불임증 등 치료범위가 대단히 넓다. 삼뎀모래찜의 놀라운 치료효과는 라돈기체에 의한 것이다. 라돈기체는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몸에 흡수되어 신경계통, 심장혈관계통, 물질대사 및 내분비계통, 조혈계통, 소화기계통 등에 좋은 작용을 하며 피부의 적응력을 높여주어 염증을 빨리 낫게 한다. 삼뎀모래찜은 해마다 삼복철기간에 하는데 그것은 삼복철에 뜨거운 열작용에 의해 모래속에서 더 많은 라돈기체가 방출되어 치료효과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된다. **기 자 :** 삼뎀모래찜이 언제부터 알려지게 되었는가. **령정철 :** 삼뎀모래찜터의 유래는 력사책들인 《고려사》, 《중경지》들에도 기록되어있다. 어느날 동대문밖 사천기슭에 산대암이란 이름을 가진 기묘한 절벽아래의 모래우로 맑은 물이 감돌아 흐르고 주위에 초목이 우거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의종왕(고려 18대왕)은 거기에 《연복정》이라는 정각을 짓게 하였다. 그런데 물이 얕아 배를 띄울수 없으므로 사천에 제방을 쌓아 호수를 만들었다. 이때

부터 산대암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삼뎀이란 말은 산대암이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도 한다. 이밖에 삼뎀이란 말이 인삼다음을 뜻에서 나왔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옛날 황해도 배천고을에 몰락한 량반부부가 마흔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이 살았다. 하도 속이 상해 안해인 안씨가 용한 의원을 찾아 갔더니 의원이 하는 말이 《내외가 양기가 몹시 허하네. 양기를 돋구는 데 인삼이상 없으니 인삼을 꼭 달여 복용하면 기별이 있을거네.》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 인삼 한근을 얻어 달여 먹었는데도 기별이 없어 다시 의원을 찾아갔더니 수영을 내리썰며 의원이 하는 말이 《삼다음은 모래찜이야. 산대암아래에 가서 모래찜을 하라구. 남산뎀 뎀기가 강그리 빠질거네.》라고 하는 것이었다. 의원의 말대로 사천에서 모래찜을 한 안씨는 그후 딱딱같은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다고 한다. 안씨는 너무 기뻐 만나는 너인들에게 《이보라구, 삼다음은 모래찜이야.》라고 자랑했다. 이 말이 한입두입 건너 삼뎀모래찜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개성의 자랑인 삼뎀모래찜터를 더 잘 보존하고 치료조건과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겠다.



◆사자고추 사자고추는 비타민 C, B, P, PP가 풍부하므로 당뇨병과 정력감퇴, 불면증, 우울증의 치료에 특효가 있다. 또한 칼리움과 나트륨, 린, 철, 칼슘, 동, 마그네슘, 아연 등 유익한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사자고추는 위염과 경련, 빈혈증, 배아픔, 변비를 치료하는데 유익하다. 그밖에 사자고추에는

암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사자고추즙은 당뇨병치료 그리고 머리칼과 손발톱이 잘 자라지 않을 때 사용하면 좋다. ◆도마도 비타민 A, B, C, E, K, PP를 비롯한 각종 미네랄과 린, 마그네슘, 칼리움, 나트륨, 요드, 철, 아연 등이 도

마도에는 풍부히 들어있다. 또한 당분(특히 포도당과 과당)과 유기산, 가장 강력한 항산화물질의 하나인 리코펜이 들어있

는 복숭아는 누구나 좋아하는 열매이다. 복숭아는 훌륭한 리노제이며 설사약이다. 복숭아를 먹으면 소화기의 기능이 촉진되고 입맛이 좋아지며 빈혈증과 위염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복숭아는 열량이 높은 것으로 하여 비만증과 당뇨병환자들은 먹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7월에 가장 유익한 식품들

사화 병풍에 달긴 조소 (4)

글 신창섭, 그림 박봉혁

《재상? 그런데 차림새가 왜 이다지도 초라한가?》 한명회의 의문에 찬물 음이었다. 《그건 이 사람이 재상이 된 다음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을 데려다가 재상이 되어볼 꿈을 가졌던 이전의 자기 모습을 그리게 한것이라 하오이다.》 《그러니 고기를 낚은게 아니라 재상감투를 낚았네그러. 거 참, 알구보나 뜻이 깊은 그림일세그러.》 한명회는 그제야 깨닫는다. 《내용도 범상치 않거니와 화공의 붓질솜씨 또한 레사롭질 않네.》 한명회는 입이 헤벌쭙하여 이렇게 한마디 더 보태었다. 《대감님의 마음에 흠씩 드신다니 소인의 마음도 기쁘오이다.》 학재가 이렇게 맞장구를 치자 한명회도 더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병풍을 보고 또 보았다. 그러나 그는 걸으로는 웃는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이놈아, 그만 지껄이고 그걸 놓고 당장 나가라.》 하며 쫓아버리고싶은것을 겨우 참고있었다. 물건은 보면 볼수록 탐나는것이였다. (거 참, 묘한걸. 어쩌면 그리두 신통한가. 혹시 강태공이 내가 아닐가, 아니면 내가 강태공?!...) 이걸 안방에 두르고 그 앞에 척 울방자를 틀고앉아 사람들을 맞는다... 아마 병풍을 보는 눈들이 모두 확 뒤집혀졌지. 아, 참 그렇지. 여기다가 멋진 시구까지 휘갈겨 써

《한명회의 두눈이 금시에 사발만해졌다. 안방재산이라면 값진 물건을 넣어둔 금은자개 박이장농만 해도 몸돌릴 짬이 없이 빼곡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놈의 돈주머니가 그것의 절반과 비길나위가 있는가?! 아무

통이 뒤틀렸으나 이내 몸가짐을 바로하고 능청스레 물었다. 《그러니 그냥 가지라고는 안할터이지?》 그 물어보는 까닭을 제격 눈치챈 학재가 두손을 가로 저었다. 《원, 대감님두, 내 아무리 장사질을 해먹는 놈

한명회는 속으로 내 몸값이 이리 높은가 하고 입을 빗짓하다가 문득 잠전에 장사군이 하던 말이 생 각나 또 입을 열었다. 《그래 항간에 돈다는 소문이 어떤것이길래 그리도 감탄인가?》 《다 아실러인데... 거 뒤 과시 제갈공명도 따르지 못할 당대의 책략모사에 영웅호걸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오이다.》 《제갈공명? 허허, 못하는 수작들이 없군. 임자에겐 그야말로 <마고소양>이 잘 어울리겠는걸.》 이 말에 학재는 귀가 설어 《마고소양?...》하며 의아해하였다. 《그저 그렇단 말일세.》 장사군이 자기를 추어올리는 바람에 언제인가 수양대군이 자기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 그 말을 그대로 내뱉으면서도 한명회는 그 말이 그닥 싫지는 않았다. 그래서 수양대군도 나를 싫지 않게 대해준가보다 하고 한명회는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놈이 혹시?)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것은 사실 이전에 자기 한 일들의 대개가 다 자기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한 사기적이며 음모적인것으로서 죄없는 사람들을 마구 죽인 불인무도한 죄상이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갈마들었기때문이었다. (죄는 지은데로 간다고 혹시 내가 이놈의 계략에 놀아나는것은 아닌가?) 그러던 한명회는 언갑속을 놀이 따로 있지 하고 자기를 위안하며 종시 병풍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였다. 《내 집 대문을 넘는 놈치고 리속 없는것들이 없더니만 오늘은 참 고마운손을 보냈네그러. 하여간 고마운 일일세. 그대두 거저야 어떻게 받겠나. 가만 있자...》 하며 한명회는 안방에 차려놓은 물건을 둘러보다가 학재에게 선선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자네 보는 눈에 맘나는것이 있으면 고르게, 우리 벗삼은것으로 하고 서로 주고받은셈치세.》

